

올림픽의 감동, 이젠 동계체전으로

제103회 전국동계체전 25일 개막

광주시, 전남도 선수단이 오는 25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등지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시체육회는 스키, 빙상 등 5개 종목 111명(선수 57, 임원 54)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전남은 6개 종목 158명(선수 117명, 경기임원 41명)이 출전한다.

광주는 지난 대회(제101회, 2020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233점을 획득하며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시체육회는 스키 스노보드에 출전하는 김예나(광주스키협회)가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

광주 스키·빙상 등 5개 종목 111명 출전...스노보드 김예나 메달 기대 전남 6개 종목 158명...아이스클라이밍 사전경기는·동 획득 "출발 곳"

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예나는 지난 제99회와 제100회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27일 경기가 열리는 켈링 일반부도 기대 종목이다. 여자일반부팀은 1회전에서 전남대표와 조우한다. 지난 20일 사전경기(시범경기)로 열린 산악에서 김혜빈(풍암고 3년, 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이 6위에 머무르며 대회를 마쳤다.

김광아 회장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훈련에 매진해온 만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란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선수단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스키, 바이애슬론, 켈링, 빙상, 아이스하키, 산악 종목에 출전한다.

스키에서는 지난 101회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맹활약한 크로스컨트리 조다은(화순초 6년)이 다시 한번 다관왕에 도전한다.

바이애슬론에서는 국가대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랍신과 예카테리나가 다관왕을 노린

다. 단체전인 켈링은 44명, 아이스하키 19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빙상종목은 피겨와 쇼트트랙에서 총 8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다.

전남은 개막전 사전경기에서 손조롭게 출발했다.

지난 20일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사전경기에서 이영건(나루터클라이밍집)이 산악(아이스클라이밍) 남일부 리드에서 은메달을, 스피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김재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2년간 같고같

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02회 대회가 취소되면서, 2년 만에 열리는 겨울 축제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타들도 대거 출전한다. 황대현은 24일 남자 500m와 25일 1,000m 출전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와 함께 올림픽 계주 은메달을 합작한 박장혁, 김동욱(이상 스포츠토트)도 대회에 출전한다. 여자부에서는 베이징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을 합작한 이유빈(연세대), 서휘민(고려대), 베이징에 동행했던 박지윤(한국체대) 등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열흘 남은 패럴림픽 대표팀 '코로나 비상'

선수·관계자 등 7명 확진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박치를 기해야 할 대한민국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패럴림픽 개막 열흘 전인 22일까지 대표팀에서 선수 2명과 관계자 5명 등 총 7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알파인스키 선수 1명과 가이드 1명, 훈련 보조 2명 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격리 중이다. 아이스하키에선 한인수 대표팀 감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15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두 명은 이날 격리가 해제됐지만, 한 감독은 추가로 받은 PCR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휠체어켈링 대표팀에서도 선수 1명이 19일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알파인스키 시작장에 부문의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인 '가이드 러너'가 함께 달리는 종목으로, 선수가 가이드의 음성 안내를 받으며 함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중요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이드의 대회 출전이 불발될 경우 선수는 다른 가이드와 경기에 나서야 한다.

단체 종목들은 '완전체'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체육회는 대회 개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음성이 확인되면 늦게라도 출국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골 때리는 그녀들' 진도에도 있다



여자축구단 '진도군 퀸즈 FC'가 아리랑체육공원에서 창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퀸즈FC' 여자축구단 창단...주부·직장인 등 34명 참여

진도군 최초 여성 축구단이 탄생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여자축구단 '진도군 퀸즈 FC'가 전남 아리랑체육공원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 퀸즈 FC는 최근 여자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가정주부, 직장인 등 20대

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34명이 참여했다.

축구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정기적으로 진도군 아리랑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맹훈련하고 있으며 단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정기 훈련을 거쳐 타지역 여자축구단과 교류

경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전남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진도군 퀸즈 FC 김해자 회장은 "창단을 위해 도움을 준 진도군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참여한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승부를 떠나 함께 뛰고 맘 흘리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자축구단으로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호주오픈 출전 불발 조코비치, 두바이서 분풀이



백신 접종 문제로 호주오픈테니스에 출전하지 못했던 조코비치가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총상금 279만4840 달러)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로렌초 무세티(58위·이탈리아)를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조코비치가 2-0(6-3 6-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김국영 '0.1초 만 더'

독일 실내육상 60m 6초73 기록...세계실내선수권 참가 기준 미달

김국영(31·광주시청)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실내육상대회 남자 60m에서 6초73에 레이스를 마쳤다.

단기 목표인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60m 참가 기준기록 6초63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김국영은 21일(한국시간) 뒤셀도르프 실내육상대회 60m 예선 1조에서 6초73으로 4위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6초63에 도전할 기회 한 번을 잃어 더 아쉬웠다.

한국 남자 100m 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은 올해 1월 9일 유럽으로 떠났다. 귀국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의 단기 목표는 3월 19~2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이다. 3월 7일까지 실내 육상 60m 6초63의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출전 자격을 얻는다. 김국영에게는 2주의 시간이 남았다.

김국영의 2022시즌 최종 목표는 100m 9초대에 진입이다.

김국영은 "202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와 아시안게임(9월 중국 항저우)이 열린다. 내가 100m 9초대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익숙한 방법으로 시즌을 시작하면 또 '10초1, 10초2대 기록'만 세우고 끝날 것 같았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유럽에서 2022시즌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국영은 올해 6월 26일까지 10초05의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진출을 확정한다. 10초05에 도달하지 못하면, 랭킹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찬성 '이번엔 꼭'

4월 10일 UFC 페더급 타이틀전

'코리안 쉐비' 정찬성(35)이 4월 10일 UFC 273 메인이벤트에서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34·호주)와 타이틀전을 벌인다.

정찬성에게 2013년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브라질)에게 도전했다가 4라운드 TKO 패배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갖는 타이틀전 기회다.

정찬성은 헤드코치인 에디 처와 함께 22일(한국시간) 격투기 전문지사인 아리엘 웰와이시가 진행하는 'The MMA Hour' 화상 인터뷰에 응했다.

정찬성은 "9년 전 알도와 싸울 때는 사실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시 타이틀 도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며 "타이틀을 얻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회피 말했다.

정찬성은 "9년 전의 알도는 누구도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다"며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3관 시라노, 극장판 주술회전 0, 나일 강의 죽음
- 4관 언차티드
- 5관 언차티드
- 6관 안테벨룸
- 9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나이트메어 엘리
- 7관 씨네캐플 안테벨룸, 나일 강의 죽음,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8관 씨네캐플 해적: 도깨비 깃발, 킹메이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화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화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